

情報通信技術發達の 金融部門 및 實物部門에 대한 影響

李 天 杓*

〈目 次〉	
I.	情報通信技術發達の 意味와 經濟社會에 대한 影響
II.	情報通信技術發達の 金融部門에 대한 影響
III.	情報通信技術發達の 實物部門에 대한 影響
IV.	우리나라 金融電算化의 現況과 課題

I. 情報通信技術發達の 意味와 經濟社會에 대한 影響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거리에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通信技術과 多量의 資料 및 情報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整理하는 컴퓨터의 結合으로 상정되는 最近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前者를 통하여 시간과 거리가 부여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後者를 통하여 자료처리시간 및 資料量의 過多에 따르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中래에는 이러한 장애때문에 不可能하던 여러 가지 課業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로써 그것은 人間生活의 여러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급변하는 상황에 처해 수시로 변하는 情報를 實時間(real time)에 識別하고 處理하여 그것에 따르는 決定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情報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고까지 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組織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組織 사이에는 경쟁력에 있어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時間, 거리, 資料量 등에 의한 장애가 매우 크게 문제가 되는 分野가 經濟分野이다. 따라서 最近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른 부문보다 經濟部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흔한 관행에 따라 經濟를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으로 區分하여 본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實物부문에도 영향을 미쳤고 金融部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前者와 관련하여서는 로봇트 등을 이용하여 生産을 自動化시킨 것, VAN에 의거하여 生産, 流通活動이 質적으로 달라지도록 한 것, 情報서비스産業이 새로이 나타나고 이것이 運輸나 通信活動을 변화시킨 다음 다시 生産活動이나 流通活動을 변화시키게 된 것을 열거해 볼 수 있다. 後者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업무가 自動化되고 支給決濟制度가 네트워크의 밑받침을 받게 됨으로써 종래의 業務를 보다 效率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한편,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業務를 開發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

情報通信技術의 實物부문 및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영향은 經濟的인 視角을 가지고 보면 所得을 增大시키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정보통신기술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一方的인 因果關係라기 보다는 相互依存的이고 雙方的인 因果關係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경제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이 다시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有效需要로 되어 정보통신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이상과 같은 복잡한 여러 側面을 모두 다루지는 못한다. 단지 그것의 限定的인 斷面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情報通信技術의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을, 金融部門에서의 變化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룬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論外로 한 채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금융부문이 영향을 받은 측면만을 다루며, 實物部門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발달이 實物부문에 대해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論外로 한 채, 정보통신기술발달이 금융부문에 변화를 가져와 그것이 간접적으로 實物部門에 미친 영향만을 다룬다.

이하, II節과 III節에서는 情報通信技術發達の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과 實物부문에 대한 間接的 影響을 각각 고려해 보고, IV節에서 우리나라 金融電算化의 現況과 課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논의의 中心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발달의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自動化 및 네트워크化, 支給決濟制度, 金融VAN을 검토하고, 나아가 시각을 상품 및 金融機關에 맞추어 金融新商品問題와 業務領域調整問題에 대해서도 論議한다.

(1) 그러나 情報通信技術이 가지는 이러한 正의 영향과 더불어 컴퓨터犯罪, 個人生活(privacy)의 침해, 새로운 樣態의 人間疎外 등 負의 영향도 있다.

II. 情報通信技術發達の 金融部門에 대한 影響

1. 최근 金融變化의 樣相과 原因

다소 길게 보면 1970年代初盤 오일달러의 還流를 계기로 하여, 그것보다 더 짧게 보면 1980年代初 開發途上國 債務危機를 계기로 하여, 國際金融은 그 이전보다 크게 變化하였고, 이러한 變化와 대응하여 각국의 금융도 크게 변화하였다. 변화의 양상으로서 종래 금융의 中心이었던 銀行의 預金受入과 貸出이라는 主宗業務가 相對的으로 덜 중요해지고, 證券去來, 投資諮問, 리스, 資料處理 등 소위 非銀行業務(non-bank activities)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게 되었다. 금융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銀行은 預金利子를 높게 지급해야 하고 貸出利子는 낮게 징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銀行收益額의 마손은 은행으로 하여금, 뒤에서 非銀行業務라고 지칭하는, 預金과 貸出의 취급이 아닌 業務에도 눈을 돌리게 하였다. 本來 여기서 非銀行業務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아닌 다른 種類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던 것이었기에, 은행도 비은행업무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銀行과 비은행금융기관이 差別化되던 정도도 작아졌다.

상대적으로 보아 서로 同質化된 각종 금융기관은 가장 有力한 收入源이 되는 비은행업무에 열중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의 手數料가 營業收入의 가장 중요한 因子의 하나가 됨에 따라 手數料業務(fee business)를 보다 效率的으로 수행하는 데 큰 力點을 두게 되었다.

근년에 들어와서 나타난 金融의 이러한 變化는 크게 보아 세 가지 要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1970年代의 汎世界的인플레이션狀況을 배경으로 하여 各國利子率이 크게 變動하게 되었고, 또 1973年 一般的 變動換率制의 國際的인 容認과 더불어 換率도 크게 可變的이 되어서 종래 固定된 換率과 安定된 利子率을 前提로 하던 금융관행이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렇게 變化된 與件에 각종 금융기관이 적응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특히 1970年代末부터 강조된 市場經濟論理의 重視라는 哲學이 支配되면서, 각국에서 종래 금융부문에 대해 과하고 있던 規制를 완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각종 금융기관의 活動영역이 소위 금융국제화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世界의 여러 곳으로 擴大되어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대의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던 것을 철폐하는 것이 國際競爭上 필요하다고 인지되어, 각가지의 金融自由化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째, 종래보다 복잡하고 여러 次元과 관련을 가지는 새로운 形態의 금융거래수행을 가

능하게 하는 情報通信技術이 導入되어 이용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後述되는 바와 같이 金融自由化의 여건 안에서 각종 금융신상품이 導入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금융신상품은 컴퓨터에 의한 취급이 아니고서는 去來가 不可能한 것들이다. 또 情報通信技術을 活用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네트워크 등 投資를 하기 위해서는 원거리통신의 기술이 前提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등에 대한 대규모의 投資가 妥當視되기 위해서는 情報통신기술의 活用に 의존하는 新商品에 대한 상당한 需要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金融서비스 生産過程에 대한 影響

금융신상품이 대개의 경우 證券의 形態를 띠고 나타나고 이것의 거래가 금융거래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아 이것을 金融證券化(securitization of finance)라고 표현한다. 금융부에서의 경쟁이 全世界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금융시장이 서로 統合되어 가는 현상을 인지하여 金融의 統合化(globalization of finance)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情報通信技術의 活용과 規制緩和가 없었더라면 不可能했었을 것이다.

營業活動의 範圍가 地域적으로 넓어지고 취급 상품이 다양화되었으며, 根本적으로 利率과 換率이 可變인 狀況下에서 영업해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이때의 영업상의 不確實性을 줄이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이자율이나 환율을 豫測하고 유동성 및 적정자본규모를 미리 확보하는 등 自體의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可變利率商品을 거래하려고 하고 滿期가 긴 商品보다는 만기가 짧은 貨幣市場商品을 취급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특히 消費者와 직접 대면하는 小賣金融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情報通信技術에의 投資에 따르는 負擔을 人件費를 줄여 대처해 보려는 태세를 취하게 됨에 따라, 電子技術을 大幅으로 도입하여 活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대응하여서 잘 정비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지탱되는 管理情報體系를 지녀야 하고, 그것을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活용할 수 있게끔 組織의 재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각 부서는 情報體系에 의해 統合되면서 서로의 業務가 補完性을 갖게끔 組織되나, 종래보다는 分權化된 形態로 바뀌게 되고, 각자가 대면하는 상이한 고객(예컨대, 家計, 企業, 코레스銀行, 投資信託會社 등)에 대해 差別化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分化된다. 그리고 나서도 餘力이 있고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대응하게 된다.

1) 事務自動化, 經營情報體系化 및 네트워크의 活용 및 그 限界

電子工學에 근간을 둔 情報通信技術이 금융부문에 도입되는 과정을 形式上 세 가지 段階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첫번째 단계는 1個 銀行 또는 은행의 個別 店舖에서 情報통신기

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업무를 自動化하고 合理化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대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며, 이것을 종래 사람이 하던 것으로부터 자동화의 기치아래 機械나 컴퓨터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있다. 은행지점에서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여 預金을 하거나 引出하는 것을 취급하는 업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러한 反復的 性格의 업무는 실사 그것이 은행점포에서 화이트칼라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이나 기타 작업장에서 部品을 組立하거나 벽돌을 쌓는 블루칼라의 業務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러한 業務에 대해서는 初期 科學的 管理法의 테일러方式(Taylorism)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어 동질적 업무의 반복에 따르는 흥미의 상실, 人間機械化 등의 限界點을 극복하기 위하여 業務機械化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段階에서는 개별은행 또는 개별점포에 限定되었던 정보통신기술의 活用이 서로 다른 은행간의 업무연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形成과 그러한 네트워크의 活用으로 擴張된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1개 은행의 업무에만 限定되었던 네트워크의 포괄범위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여러 은행의 업무중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좋은 것을 포괄하게끔 擴充된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은행이 많아짐으로써 소위 네트워크外部經濟性(network externality)이 實現되게 된다.⁽²⁾

세번째 단계에서는 은행간에 구축된 네트워크 및 그곳으로 부터의 情報를 充分 活用하기 위하여, 銀行 밖의 기타 금융기관은 물론 企業이나 家計와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을 꾀한다. 기본적으로 은행간 네트워크에 대한 投資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根幹으로 하면서 企業이나 家計와 연결하는 追加 投資를 하는 것에 의해 은행업무와 관련된 종래의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를 實時間(real time)에 非銀行部門에 提供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의 個別銀行內에서의 自動化・電算化를 향한 努力은, 반복적이고 업무의 수행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 루틴(routine)한 日常業務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小賣金融의 업무 중 사람이 하던 課業을 기계로 代置하는 性格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投資의 成果는 銀行의 窓口職員을 몇 사람 줄일 수 있었다는 式으로 評價된다. 달리 말하면 자동화나 전산화를 위한 투자는 勞動을 代替하는 資本形成의 一種으로서 기존의 점포설비 등 자본설비와 다른 또 하나의 生産要素가 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와 전산화는 고용문제에

(2) 전화에 가입한 가입자가 몇 명 밖에 안될 때에는 전화가 있다고 하여 加入者에게 큰 이익이 없다. 그러나 전화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전화 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된다. 이처럼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많아짐으로써 참여자가 얻게 되는 外部經濟利益을 네트워크外部經濟性이라고 한다.

대한 염려를 同伴한다.

이 단계에서의 정보기술의 적용은 예금의 受入과 引出의 처리가 주종이 되나 기타 計算業務를 프로그램화하고 會計處理가 매 거래의 처리와 동시에 마감조치만으로 終了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장만 및 관리정보체계의 구축도 목적으로 하게 된다. 또 예금의 수입과 引出業務와 類似한 業務인 信用卡業務도 포괄하게 된다.

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부터의 情報를 가지고 경영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단계의 자료화 및 전산화를 위한 투자는 勞動을 代替하는 生産要素가 되면서 同時に 勞動을 統制할 수 있게 하는 統制手段을 제공하기도 한다.

두번째 段階에서 銀行間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充實해지게 되면, 그러한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業務가 발달하게 된다. 각종 은행이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은행의 이용자는 자기가 구좌를 가지고 있는 점포나 은행에 가지 않고 다른 은행의 다른 점포에 가서도 네트워크로 서로 업무가 연결되어 있는 한 자기 구좌가 있는 점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CD공동당 내지 ATM공동당이다.⁽³⁾ 아무 銀行에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자기의 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 限定될 必要가 없이 아무 점포에나 가서 CD나 ATM을 이용하여 引出 또는 預入을 할 수 있다.

CD 등의 이용은 현재 카드를 매개로 하고 있다. 암호번호와 現金카드(cash card) 등을 입력하여 引出(ATM의 경우에는 預入과 引出)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고객은 은행 창구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혼자서 引出하는 것이 가능하여져서, 소위 셀프서비스 은행이용(self-service banking)이 현재화하게 된다.⁽⁴⁾

세번째 段階에서는 銀行間 네트워크를 보다 集約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家計에 대해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데, 후술되는 바 POSEFT, firm banking), 홈뱅킹(home banking),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CMS)가 모두 이것의 예가 되겠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銀行間에 形成되었던 네트워크가 企業과 家計에 擴張됨으로써, 은

(3) ATM(automatic teller machine)이란 CD의 발전으로서, CD의 기능이 자기구좌로부터 資金을 引出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ATM은 자금인출과 예입 및 送金까지 가능하게 한다.

(4) self-service banking의 다른 좋은 예로는 pay-by-phone service가 있다. 고객이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은행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해도 되는 것이다.

행들로서는 네트워크의 活用度(utilization ratio)를 높여 投資費를 보다 신속히 回收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企業이나 家計로서는 은행들의 네트워크를 간접적이거나 이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提供받아 經營效率의 增大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네트워크 外部經濟性이 보다 폭 넓게 실현될 수 있게 된다.

후술되는 바 支給決濟制度의 변화에 있어 EFT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은 이러한 은행 및 기업 등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先決要件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지급결제제도에의 영향은 네트워크活用の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獨立的으로 다루게 된다.

이상에서 본 금융업무의 自動化, 電子化 및 네트워크의 活用은 금융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實際를 크게 변화시켰다. 經營組織의 次元에서는 은행의 점포를 中心店과 衛星店(hub and satellite)을 가지는 형태로 변화시켰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위성점에서는 루틴한 업무를 中心으로 하는 특정된 몇 가지 업무만을 취급하고, 日常的이지 않은 業務를 포함한 은행의 거의 모든 業務는 中心店에서만 취급하는 形態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위성점에서는 은행원을 평생의 직업(carrier)으로 삼는 支配人 등의 人力은 없어지거나 극소수만이 남게 되고, 그곳의 대부분의 人力은 女性人力 또는 파트타임人力으로 充當된다. 물론 이러한 人力들의 規模도 종래의 慣行에서의 規模보다는 작다.

은행의 업무가 수평적, 수직적으로 分割되어 單純人力이 단순한 業務만을 취급하는 사정이 가장 현저하게 등장하고, 이러한 단순한 업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代替된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 중 代表的인 것이 컴퓨터에 資料를 入力시키는 것에 限定되어, 은행근무의 내용이 低質化된다. 그런데 모든 은행업무가 自動化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테일러主義가 적용될 수 있는 單純作業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이 이렇게 自動化되고 네트워크에 의존하게끔 변화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問題를 제기한다. 우선 은행을 평생직장으로 삼고 은행업무의 이것 저것을 담당해 오면서 成長해가는 支配人級의 人力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非常의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融通性(flexibility)이 크게 弱화된다. 또 서로 分化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分割된 人力群 사이에서 不協和音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시정하는 努力이 종래 이상으로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자주 나타나거나 그것이 용이하게 是正되지 않음으로써 직장의 士氣(morale)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 結果 은행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된 이후 勞動生産性이 向上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창구직원의 일이 기계에 의해 수행되게 됨으로

써 창구직원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으니, 창구직원수만을 주목하고 보면 분명히 勞動生産性은 向上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 전자화와 더불어 각 부문에서의 업무의 조정을 위하여 더 많은 人力이 投入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면, 총체적 노동생산성이 增大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 때 창구직원보다는 업무조정을 위해 必要한 人力이 더 高級人力일 것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자동화, 네트워크화를 위해 막대한 장치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想起하고 나면, 總體 生産性의 向上에 대한 회의는 더욱 강해진다 할 수 있다.

은행업무 자동화에 의한 成果로서 제일 많이 引用되는 대상이면서 可視的인 것이 CD機의 利用이다. 예컨대, CD機 한 대가 창구직원 4人的 일을 해내기 때문에 절약되는 창구직원의 봉급의 1~2년치이면 CD機의 投資費用을 증가하게 된다는 點이, CD機의 導入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論據가 된다. 그러나 이때 창구직원의 일이나 CD의 業務를 측정하는 單位는 去來件數가 되며, 매거래에서의 취급금액은 흔히 無視되고 있다. 그에 따라 CD機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창구직원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면서 보다 자주 CD機를 이용하게끔 銀行利用行態가 바뀌고, 그로써 창구직원을 상대로 하여 거래할 때 보다 CD機를 이용하게 되면서 引出規模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은 看過되고 있다.⁽⁵⁾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예는 은행간 네트워크의 擴張·利用으로서의 홈뱅킹이나 뽀뱅킹과 관련된 것이다. 네트워크를 보다 집約적으로 이용하여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提供하자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지 못하고 네트워크 外部經濟性도 도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는 것이다. 뽀뱅킹이나 홈뱅킹의 아이디어는 좋으나,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화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의 擴大利用을 具體적으로 實現하는 수요자는 매우 限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結果로서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先進國에서도, 은행과 企業이나 家計를 연결시킴으로써 네트워크를 活用하는 第3段階의 作業은 10여년전의 흥분에 비추어 보면 보잘 것 없이 制限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따라 뒤에서 支給決濟制度와 함께 볼 수 있듯이 이것과 대응하는 EFT가 다른 종래의 지급결제방식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부문에서 네트워크는 더욱 擴張될 것이고, 그것을 보다 集約적으로 活用하

(5) 引出規模가 줄어들면 은행에 引入되어 있는 殘高가 높아져, 收益性을 增大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나 支給利率도 많아지게 된다.

는 프로그램과 기타 方法은 더욱 더 開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작금의 다소간의 정 체현상과 관련시켜 볼 때, 다음의 몇 가지를 留意해야 할 것이다.

첫째, 종래 평생직업으로서 은행을 택한 은행인들이 갖던 금융업무에 대한 정열, 사명감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를 細分하여 재편성하는 데 지나치게 機械的이 되 어서는 안되겠다. 自動化, 電子化의 편리한 점을 이용은 하되 그것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 고 일단 유사시의 돌발사태에 대처할 能力을 잃는 人力構成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둘째, 수요가 있고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그것이 증가하는 금융서비스를 식별하여 分析 한 후, 그것들을 자동화 내지 전자화할 수 있는 것과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나눈 다음, 전 자에 대해서만 전자화를 피하되, 後者と 전자 사이의 關聯性도 지탱할 수 있도록 後者를 수행할 汎用能力을 가진 직원들도 훈련시켜 놓아야 하겠다.

셋째, 전자화를 지탱하는 각종 기기의 이용에 직원들을 숙달되게 하는 한편, 관련기기도 도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한(user-friendly) 것으로 開發하여, 이용자와 이용되는 도구 사이의 거리를 줄여야 하겠다.

요약하건대, 아직까지의 金融部門에 導入된 情報通信技術이 더 效果的으로 活用될 수 있 기 위해서는 明瞭한 情報體系(transpar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支給決濟制度

個別 金融機關의 業務 내지 수요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각종 수요는 최종적으로는 자금 의 이동을 통해 決濟(cleared)되지 않으면 안된다.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서비스의 이동과 반대방향으로 화폐의 支給이나 受取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支給이나 受取의 手段이 되는 화폐가 現金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들은 支給決濟制度를 통하여 결제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게 된다. 예컨대, 手票에 의해 자금의 수수가 행해졌다면 그러한 수 표는 어음交換過程을 거쳐 소위 交換에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됨으로써 決濟를 완료 하여야 한다. 이 때 수표의 교환이 끝나기 이전에는 소위 부도가 날 수 있는 危險이 다소나마 존재하고 있다.

現金通貨를 통한 支給決濟의 方法 또는 수표가 전면이 나타나는 預金通貨를 통한 지급결 제의 방법은 모두 종이매체를 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급결제의 方法으로도 종이媒體 대신에 電子媒體를 쓰는 電子資金移替 (electronic fund transfer, EFT)가 나타나게 되었다. EFT를 통한 결제는 物品 등의 引渡와 그것에 대응하는 代金の 授受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어 소위 즉시결제(real time clearing)를 가능하게 하였다.

종래 現金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즉시결제에 이루어졌으나, 現金決済의 경우에는 결제해야 할 代金이 거액일 때에는 거대한 규모의 현금을 수수해야 한다는 불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거액의 자금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표 등을 이용했으나 이때에는 교환이 떨어지기까지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에서 즉시결제에 편리성은 도모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EFT가 나타나 거액자금의 지급결제를 아무런 어려움없이 수행하면서 즉시결제까지 가능하게 되었기에 EFT는 매우 편리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지되게 된 것이다. 다만 문제는 EFT결제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와 관련장치에 대한 投資가 先行되어야 하나, 이러한 투자가 막대한 자금을 요구하기에 EFT決済의 편리한 이용이 어느 社會에서나 쉽게 가능하지는 않다.

1960年代初 EFT의 가능성이 인식되고 그로써 現金을 사용하지 않고도 즉시결제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인지되자, 소위 無現金社會(cashless society)가 언급되었었다. 지급결제의 수단인 현금이 종국적으로는 EFT에 代替되어 현금이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지급결제가 수행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無現金社會에 대한 豫想과 흥분의 시기로부터 이십수년이 지난 오늘날의 時點에서 보면, 어느 사회에서도 無現金社會는 實際化되지 않았다. 이는 지급결제를 모두 EFT方式에 의해 완결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EFT에 대한 充分한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經濟社會의 모든 사람들이 종래의 지급결제방식을 버리고 EFT를 選好하게끔 EFT에 대해 습관화되고 익숙하게 되지 않았다는 데 그 原因이 있다고 여겨진다.

갓가지 지급결제수단이 존재할 때 그 중 어떤 것들이 어떠한 配合(mix)을 가지고 쓰이느냐 하는 것은 관련되는 經濟社會의 歷史와 慣行 및 각종 지급결제수단을 밀받침하는 技術의 可用度에 의존한다. 예컨대, 우리나라나 日本에서는 현금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美國이나 불란서 등 歐美國家에서는 수표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비교적 소액의 대금을 一定한 期間의 차이를 두고 규칙적으로 지불하는데에도 수표가 쓰이고 있어, 個人의 수표사용에 따르는 限界利益이 그러한 수표를 인정하고 交換을 지속시키는 어음交換에서의 社會的 限界費用보다 작다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지급결제방식은 전자기술이 발달한 美國이나 日本 등 先進國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최첨단의 전자기술을 이용한 갓가지 方途가 존재하고 이들 모두가 부분적으로나마 이용되고 있다. 반면에 전자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전자매체를 통한 지급결제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先行條件을 미리 구축하여 놓지 못한 나라에서는 현금이나 수표를 쓰는 종래의 지급결제방식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

전자매체에 本格的으로 의존하는 지급결제방식을 가질 만큼 지급결제제도를 지탱하는 네트워크와 관련장치 등 下部構造投資를 흠족하게 이루어 놓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장치인 現金引出機(cash dispenser: CD) 등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本來的으로 現金을 이용하는 지급결제방법을 훨씬 간편하게 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經濟活動을 하고 현금지급을 해야 하는 장소 여러 곳에 CD機를 설치해 놓고 필요한 때 CD機로부터 現金을引出하여 현금지급의 필요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많은 현금을 지니고 다니면서 도난과 분실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는 불편한 점을 극복하면서 현금결제에서의 즉시결제의 利點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EFT의 方法중 物품구입과 同時に 즉시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후술되는 바 POSEFT(販賣時點 電子資金移替)方式보다는, 物품구입자가 CD機로부터 現金을引出해야 한다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OSEFT를 가능하게 하는 下部構造를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보다 CD를 설치하는 정도의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이 社會 全體的으로 效率的일 때에는 이 方法에의 의존이 정당화될 수 있다.

아 물론 오늘날의 대부분의 經濟社會에서는 부분적으로는 現金이나 수표 등 종래의 지급결제수단이 쓰이고, 부분적으로는 電子移替의 결제방식이 쓰이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수단이 각 사회에서 특유한 양태의 配合를 가지고 있음은 그 社會의 慣行 및 각종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에 대한 費用의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推定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종 지급결제수단의 長點과 短點을 간단히 살펴 보고, 그러한 것들의 配合으로서 인지될 수 있는 總體로서의 지급결제제도의 경제사회에서의 중요성 내지 의미를 생각해 본다.

(1) 現 金

현금은 가장 오랫동안 쓰여 왔고 또 가장 간편한 지급결제수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高額 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거액의 자금을 결제하는 때에는 한계가 있다. 현금을 많은 분량 가지고 다니는 때에는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은 小額去來의 결제에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2) 수 표

예컨대 物品을 販賣하고 그 대가로서 수표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수표가 교환에 떨어져 決済가 완료되기 이전까지의 단계에서는 債權者가 되고, 物品을 買入한 사람은 債務者가

된다. 수표라는 매체는 債權者가 지급을 요구하여 어음交換을 통하여 決済가 완료되어야 하는 바, 이때 債務者가 그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부도가 나고 결제는 완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표제도에 있어서는 부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긴장상태 내지 대립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관계의 존재는 분명히 수표제도가 갖는 코스트의 一種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수표의 交換을 위해서는 어음交換所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수표를 분류·집계하여 交換하는 人力과 장비가 필요하다. 交換되어야 하는 수표의 매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어음交換所의 人力과 장비가 어느 정도 이상서부터 갑자기 늘어나야 하는 性質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수표교환에 따르는 限界費用이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증거를 남기면서 거액의 자금을 정확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 수표제도를 巨額去來의 決済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써도 좋은 少額去來에 대해서는 수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論理가 나타난다. 수표는 EFT方法은 아니다. 그러나 수표교환을 위한 分類와 集計過程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는 있다.

(3) 지로제도(Giro system)

지로란 債務者가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채무에 대응하는 支給을 하는 방도로써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로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앞서 먼저 지급을 함으로써 지급결제가 시발되기 때문에 수표의 교환에 있어서 개제되는 부도의 위험이 없다. 그러나 아무런 강제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定時에 지급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많았기에, 지로方式을 모든 去來에 대해 언제나 쓸 수는 없다. 지로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의 送電을 中斷하는 등 債權者가 별도로 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사실상 강제할 길이 있을 때 이용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지로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效果的인 方法이 된다. 단 지로를 통한 지급에는 통상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支給의 신속성 및 즉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된다. 지로는 종이매체를 이용하는 이체제도이다.

(4) 自動決済所(automated clearing house: ACH)

같은 性格을 가지는 거래를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할 때 磁氣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디스켓 등에 담은 情報를 一括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받아 처리하는 곳이 자동결제소이고, 이러한 자동결제소를 이용하는 決済方式이 ACH方式이다. 예컨대, 큰 회사가 많은 종업원에 대해 봉급을 줄 때 종업원 개개인에 대해 수표를 지급하기보다는 자동결제소를 통해 종업원 개개인의 계좌에 예입하는 것이다. 자동결제소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의 協力에 의해 1920年代에 세워졌고, 봉급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利子나 보협료 또는 공공요금을 낼 때 자기구좌로부터引出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자동결제소방식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다소간의 시간이 前提되어야 하기에 즉시결제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大量 反復되는 지급거래를 가장 經濟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5) 電子資金移替(electronic fund transfer: EFT)方式

수표나 지로제도가 종이媒體를 이용하는 이체지시에 따라 지급행위를 수행하는 것이고, 자동결제소방식이 자기테이프나 디스켓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이체지시에 따라 지급행위를 수행하는 것인 데 비해, EFT에서는 원거리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인 신호를 써서 이체지시를 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수표 등의 종이매체나 ACH의 전자매체에 담긴 情報를 격지간에 이동시키는 方法은 그러한 매체를 物理的으로 사람이 운반하는 것이다. 반면에 EFT에서는 情報가 物理的 운반이 없이 전자통신기술에 의존하여 전자적인 신호로서 송신되면 된다. 따라서 EFT에서는 즉시결제가 가능하고 다량의 반복적인 지시를 받드시 필요로 함이 없이 個別的인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EFT는 수표부도 등과 관련된 floating의 문제가 없고 즉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능면을 보아서는 理想的인 決濟方途이다. 그러나 EFT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通信네트워크, 이것을 통해 연결된 銀行 및 기타 여러 기관에서의 컴퓨터, EFT運用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先決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下部構造를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운영비용이 든다. EFT의 예로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예가 POSEFT인 데, 슈퍼마켓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사고 그 곳 카운타에서 買入者의 은행구좌로부터 슈퍼마켓의 구좌로 즉각 移替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POSEFT가 결제업무의 수행 측면만을 보아서는 더 없이 좋은 方途이나, 슈퍼마켓에서의 컴퓨터의 유지 및 조작, 은행 컴퓨터의 유지 및 조작, 슈퍼마켓 컴퓨터와 은행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유지에 介在된 費用을 생각하면 그러한 편리성이 이러한 費用에 상응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된다.

(6) 有線移替(wire transfer)

EFT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企業과 家計를 네트워크내에 모두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公衆回線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有線인 通信經路뿐만 아니라 無線通信經路도 이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 集團內에서 排他性을 유지하려 한다거나 비밀을 유지하려고 할 때 限界點을 노정한다. 따라서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借債의 자금을 틀림없이 주고 받는 자

금결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有線通信方法에 의존하는 排他的 決済方法인 有線移替가 效果的이다.

EFT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有線移替는 소수 사이에서의 決済方法이다. 따라서 理論的 理想으로서의 EFT와 실제의 EFT의 실용화된 부분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는데 비해, 有線移替는 美國의 Fedwire, 日本의 BOJ-wire, 美國의 CHIPS, 英國의 CHAPS가 예시하듯 실제로 활발히 쓰이고 있다. 또 有線移替는 EFT에 상응하는 즉시결제성을 가지나, 그것을 결제의 完結을 이룰 수 있게끔 組織하느냐의 與否는 政策選擇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예컨대, Fedwire나 BOJ-wire에서는 결제완료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CHIPS나 CHAPS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상 여러 가지의 지급결제수단을 비교검토함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어떤 하나의 方法이 다른 모든 方法을 제치고 절대적인 優위에 서서 그것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性質에 따라 그것에 적합한 결제방법이 動員되어 활용됨으로써, 總體的이고 事後的으로 보면 각종 결제방도가 거의 모두 同時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經濟社會가 존속하는 한 支給決済業務는 항상 지속되어 왔기에, EFT나 有線移替의 方途가 없던 때에도 지급결제는 있었다. EFT나 有線移替 등 보다 強力하고 편리한 지급 결제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는 보다 效果的이고 신속하게 業務를 수행할 수 있게끔 바뀌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전자매체에 의존하면서 情報處理를 效率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EFT나 有線移替의 方途는 단지 지급결제라는 基本的 課業만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결제과정에서 介在된 각종 情報를 수집하여 分析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는 정보의 生産地 또는 情報의 工場(information factory)으로 되었다. 이 점을 보기 위하여, 가장 오래된 지급결제방도인 현금 수수에 의한 지급결제를 생각해 보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현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즉시결제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면서 결제는 완결된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현금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經濟全體로서의 지급결제의 전모와 그러한 지급결제거래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EFT 등에 의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급결제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컴퓨터에 소장된 資料를 分析하면 지급결제거래의 내용을 여러 가지 단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經濟社會에서는 物物交換이란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經濟去來는 지급결제제도에 反映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된 거래의 내용을 分析함으로써 經濟社會의 가치의 흐름을 效果的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지급결제방식은 지급결제업무 그 자체를 效率的으로 수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종래에는 수집할 수 없었던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정보의 공장이 되고, 그러한 정보를 별로 크지 않은 추가의 비용만을 가지고 分析하여 活用할 수 있게 하는 派生的 效果도 갖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FT 등 발달된 지급결제방식만에 의해 지급결제업무 전부를 수행하는 경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EFT 등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트를 의미하기에, 그러한 높은 코스트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巨額이고 정확성 및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去來를 위해서만 이것이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거액이면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거래가 經濟社會 全體로서도 중요한 거래이겠기에, 이들만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내용을 식별하는 것으로써 지급결제제도에 의거한 經濟社會의 分析과 認識이 거의 충분하리라고 볼 수도 있다. 가령 現金 등의 수단을 통한 거래는 규모면에서 작아 이들을 無視하더라도 經濟社會의 本質的 內容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급결제제도를 보다 발달된 方途인 EFT 등에 크게 의존하게끔 改善하고 補強한다는 것은, 지급결제업무 그 자체의 신속 정확한 수행 이상의 社會的 利益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本來的인 支給決済手段은 아니지만 지급결제될 거래의 件數를 줄이고 支給決済의 艱박성을 이완시켜 限定된 時間內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지급결제제도의 負擔을 덜어 주는 것에 信用卡이 있다. 信用卡을 소지한 사람은 그것으로 外上買入을 할 수 있고, 이때 外上賣出을 한 商人은 賣出傳票를 信用卡會社에 송부하여 販賣代金を 回收하므로, 이때의 外上買入은 카드會社에 의한 信用의 公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信用卡으로 外上買入한 사람은 一定한 기간(예컨대 한달)에 한번 그 기간동안 去來한 모든 去來에 대한 代金を 카드會社에 송부해야 한다. 따라서 信用卡을 이용하게 되면 지급결제의 進수가 일정한 기간동안 거래한 회수로부터 한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信用卡은 支給決済制度의 業務量을 줄임으로써 사실상 間接的인 支給決済手段이라고도 생각되게 된다.

信用卡制度가 存立하기 위해서는 信用卡을 발급받는 사람의 信用調査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단 발급을 받은 후에도 그것을 使用할 수 없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⁶⁾ 그런데 이러한 점검은 信用卡 加盟店와 신용카드會社가 네트워크

(6) 제공받은 信用을 상환하지 않고서 信用卡을 사용하는 것이나 도난, 분실된 個人的 信用卡을 사용하는 것 등을 排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검절차가 必要하다.

로 연결되어 있으면 실시간(real time)에 이루어질 수 있다. 신용카드制度를 위해서도 情報通信技術이 先決要件이 된다.

3) 金融VAN

VAN 또는 附加價值通信網이라는 것은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賃借하여, 그것을 再販賣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情報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널리 提供하면서, 附加價值的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VAN의 產出物은 음성, 화상 또는 데이터情報로 실체화된다.

回線을 재판매한다는 것에는 컴퓨터 端末機 사이의 접속을 위한 속도의 變換, 코드의 變換, 프로토콜의 交換, 퍼밋의 交換, 미디어의 交換 등을 포함하며, 회선의 재판매가 있어 VAN의 사용자가 回線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情報處理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개별기업의 본사와 지사, 관련회사들 또는 계열회사들 사이를 VAN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on line)化 함으로써 서로간에 情報를 즉시 적으로 授受하게 하는 것, 또는 同一한 業界 내지 상이한 業界에 속하는 여러 企業이 서로 去來관계를 가지면서 授受해야 하는 情報를 온라인으로 授受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情報提供서비스는 個人的 信用에 관한 情報, 證券情報, 企業情報 등 정보를 VAN事業者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거나 다른 企業이나 VAN事業者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가, VAN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提供하는 것이다.

經濟社會에 존재하는 價値物 사이에는 場所, 時間, 情報 등에서 隔差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나아가 場所次元에서의 격차를 극복하는 仲裁(arbitrage)行爲나 時間次元에서의 격차를 극복하는 投機(speculation)行爲는 經濟社會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의미있는 經濟活動이 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情報의 次元에서의 격차는 情報通信技術이 잘 발달되기 이전까지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것의 극복이 가능해져서, 그것에 의한 장애를 넘어 종래에는 획득할 수 없었던 附加價值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VAN業務의 經濟論理面에서의 근거가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VAN사업자는 回線을 보다 集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用途를 개발하여 企業 등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通信費와 人件費 등의 절감을 가져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처리작업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매우 가치있는 情報를 만들어 提供한다. 사용자로서는 VAN사업자를 통하여 大型컴퓨터를 間接적으로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을 段階를 따라 分類해 보면 原料나 製品을 주문하거나 주문받는 發注나 受注, 생산된 製品을 賣出하거나 買入하는 賣買活動, 賣買가 成立된 物品의 出荷 또는 納品 등으로 각각 구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原料나 製品의 賣買를 資金으로 決濟하는 단계에서 代金を 청구하거나 支拂하고, 그러한 청구나 지급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근거자료를 작성·보관하는 일 등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가지 活動은 모두 적절한 時點에 적합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여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課業을 效率적으로 수행하는 데 VAN사업자의 서비스가 매우 效果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金融VAN이란 VAN의 一種으로서 위에서 代金の 청구와 지불, 그러한 행위의 정확성 확인과 근거자료의 作成 및 保管 등과 관련된, 이른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의 情報의 격차를 극복하여 자금의 흐름 次元에서의 效率化를 꾀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통의 生産企業을 생각해 보더라도 原材料의 조달이나 製品의 販賣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去來相對方과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하나 이상의 銀行에다 口座를 開設해 놓고 있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 그러한즉 수 많은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원재료구입의 代金を 지급하고 제품판매대금을 청구하여 회수하는 일이나, 여러 은행에서의 去來內容과 殘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면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때 대금의 청구와 지급을 자체내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하고 여러 은행으로부터의 去來明細書을 받아 자체적으로 綜合하기 보다, 金融VAN에 위탁하여 대금의 청구와 지급업무를 代行하게 하고 종합적 은행거래명세표를 作成하도록 하는 것은 人件費를 줄이는 效果를 가지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利點까지 지닌다. 여기에서 金融VAN事業者의 공헌이 있을 수 있다.

金融VAN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VAN事業者의 컴퓨터와 여러 銀行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로 경쟁상태에 있는 은행들 사이에서 다른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金融VAN事業者에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용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日本에서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共同CMS(現金管理서비스)센터를 設立하여 놓고 금융VAN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企業은 그곳에 자신의 우편함을 설치하여 놓아 그곳에 각종 거래은행으로부터의 情報가 모아지게 하는, 限定的인 데이터서비스를 받는 妥協을 이루어 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支給決濟制度和 관련하여 中央銀行 또는 어음交換所가 최종적인 決濟를 완료하는 것도 一種의 金融VAN業務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은행이 傭傭킹이나 홈뱅킹

을 하는 것도 VAN業務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의 흐름은 중국적으로는 支給決濟段階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고, 현재의 法制에서 支給決濟業務는 銀行의 固有業務이기에, 金融VAN事業을 함에 있어서 銀行은 出發에 있어 有利한 立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큰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VAN事業者로서의 기동성과 융통성을 缺할 염려도 있다.

銀行이 金融VAN에 손을 대게 되면 VAN에 加入한 企業에 대한 情報의 提供機能을 통해 그런 기업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形成하여 종래의 傳統的 金融仲介機能을 수행할 때보다 관계가 더 깊어진다. 一般的으로 VAN은 去來先을 固定化시키는 效果를 가지나, 銀行과 관련된 금융VAN에 있어서 이면은 특히 현저하다. 또 情報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手數料收入을 얻을 수 있고, 餘他的 테이타베이스에의 접근을 통해 해외의 은행, 大學 또는 연구기관의 테이타베이스를 活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반면에 金融VAN이 作動하게 되면 相關회사 또는 業界內에서 서로 주고 받을 자금을 相計하는 이른바 相殺決濟가 나타나게 되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의 業務量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뒤에서 보겠지만, 증권회사 등 은행이 아닌 金融기관이 VAN事業者와 제휴하여 사실상 지급결제 類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은행의 지급결제라는 고유기능이 침탈당하게 되기도 한다.⁽⁷⁾

VAN의 一種인 金融VAN은 이러한 여러 가지 效果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情報通信技術이 가져온 金融分野에서 보여지는 현상 내지 效果라고 할 수 있다. 金融VAN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가장 效果的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VAN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은행 등 金融기관이 네트워크를 마련한 후 그것의 稼動率이 높지 않을 경우에, 은행 등에 의한 金融VAN에의 진출은 回線의 새로운 마련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外部經濟性을 提高시키는 方途가 된다 할 수 있겠다.

3. 生産物로서의 金融서비스에 대한 影響

金融自由化, 汎世界化, 證券化의 현상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利率과 換率 이전에 비해 크게 可變的으로 되었다는 與件의 變化, 각종 規制의 緩和, 그리고 情報通信技術의 金融부문에 의한 도입과 活用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따라서 金融自由化 등으로 종래에는 없던 새로운 金融서비스가 생기게 되었다거나 종래의 商品을 效率的으로 去來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商品側面의 變化를 위의 세 가지 요인중 어떤 하

(7) 이렇게 고유기능이 침탈당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銀行이 스스로 VAN事業者가 되려는 유인이 커진다.

나에 歸屬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情報通信技術의 發達이라는 요인에만 의존하는 金融商品側面에서의 변화를 식별하고, 그것을 정보통신기술발달의 영향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내용을 취하더라도 다소간 異論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되겠다.

金融自由化는 종래에는 없던 새로운 商品을 개발하여 공급하거나 종래의 商品을 새로운 方式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식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供給者 사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具體적으로 進行되는 것이다. 금융자유화, 신상품의 개발 등은 각종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의 격화를 同伴한다.

이러한 경쟁의 격화과정은 경쟁과정에서 경쟁적 공급의 대상이 되는 商品을 注目하면서 관찰해 볼 수도 있고, 직접 경쟁상대가 되는 공급자들의 對立關係를 가지고 살펴 볼 수도 있다.

1) 金融商品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에 이기려 할 때 使用할 수 있는 手段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價格과 관련된 수단으로서, 저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金利를 보장해 주고 貸與받아 가는 측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金利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경쟁 수단을 이용하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마진은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다음, 대여를 하는 등 信用을 提供하는 데 있어 借用者에게 편리하게끔 보다 融通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信用의 具體的 內容이 되는 利率, 滿期, 表示通貨, 擔保條件 들 중에서 가격경쟁수단이 되는 利率이 아닌 다른 要素에 대해서 借用者가 그의 選好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의 範圍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세제, 금융관련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게끔 자금을 예치하는 측 또는 使用하는 측에게 각종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예컨대, 銀行店舖數를 늘려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은행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CD機 등을 많이 넓게 設置하여 손쉽게 現金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수단 중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을 가지는 것은 CD機 등을 설치하여 종래에는 없었던 편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金融仲介의 兩側 相對方인 저축자 및 자금사용자들에 대해 融通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D機 등 自動化,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연관을 맺고 있다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또 정보를 획득하여 축적·정리한 다음 處理하는 데 있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 以前에는 不可能하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融通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反面에, 預置資金에 대한 利率을 높여 주거나 貸與資金에 대해 낮은 利率을 정수해도 편

참게 된 것은 部分的으로는 自動化 등으로 금융증개코스트가 작아진 데 기인하지만, 本質的으로는 그렇게 가격경쟁을 가능하도록 하는 規制緩和가 있었다는 制度變化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속하기 어렵다는 可變利率下의 經濟與件에 기인한다 하겠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金融自由化의 세 가지 요인 모두와 다소간이나마 관계를 가지나 특히 情報通信技術發達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例로서 日本에서의 商品인 소위스윙計定(swing account)을 살펴 보자. 이것은 普通預金計定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은행만이 預金を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구좌로부터 始發한다.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상 그것으로 月給의 自動移替를 받기도 하고, 電話料 등 公共料金の 自動納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의 殘額은 수시로 변동한다. 그런데 보통예금의 利率이 가장 낮기 때문에 보통예금구좌에 많은 殘高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利率이 높은 다른 金融手段에다 活用하는 것에 비해 損害가 된다. 다시 말하면,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을 때의 편리성에 의해 그것에다 다소간의 殘高를 남겨야 하지만, 그러한 殘高는 가능한 한 最少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즉, 이러한 유인에 합치하게끔 예금자의 보통예금구좌의 잔액이 어떤 一定額을 넘는 경우가 되면, 그것을 상회하는 부분을 빼내 利率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을 사는 데다 운용하고, 그러다가 보통예금잔액이 一定額 以下로 떨어지게 되면 利率이 높은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보통예금에 預入하여 必要한 一定한 규모의 殘高를 充足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스윙計定은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게끔 자금을 보통예금과 利率이 높은 商品에다 自動的으로 운용하게끔 하는 新商品으로서, 자금이 보통예금구좌와 利率이 높은 상품사이를 왔다갔다(swing)한다고 하여 스윙計定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日本의 경우 스윙計定에서 利率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쓰인 것은 「中期國債펀드」라는 것으로서, 경쟁적 國債市場에서 資金을 운영하여 높은 收益率을 얻을 수 있었던 商品이다.⁽⁸⁾ 이것은 銀行의 商品이 아니라 證券會社의 商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情報通信技術의 發達 이전에도 個人的으로 스윙計定이 예시하는 方式으로 資金을 運營하는 것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었다. 수시로 자신의 보통예금의 잔고를 확인하고 어떤 水準 이상의 것을 引出하여 높은 收益率을 가져다주는 商品에 運營하다가, 보통예금의 잔고가 必要水準 이하로 떨어지면 높은 收益率의 금융상품을 팔아 보통예금에 다시 예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예금잔고를 전환 등을

(8) 中期國債펀드는 美國의 MMF(money market fund)의 日本版으로서 후술될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를 買入할 규모가 못되는 자금을 대해서 최고의 收益率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용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또 보통예금의引出과 고금리상품의買入, 高金利商品의賣却과 보통예금에의預入을 수없이 反復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反復行爲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努力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에서 빼내 금리상품에다 投資할 자금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實益이 없는 行爲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윙計定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도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의 컴퓨터와 증권회사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예금구좌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인출하여 中期國債펀드라는 高收益商品을 사고, 은행의 예금에 不足이 나타나면 中期國債펀드를 자동적으로 해약하여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다. 兩側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보통예금잔고의 적정수준 이상 여부의 점검과 中期國債펀드의 契約과 解約이 사람의 계속된 주목이 없이도 自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본 個別的 資金運營의 코스트를 들이지 않고도 同一한 效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스윙計定の 成功의 第一 要因은 은행의 컴퓨터, 證券會社의 컴퓨터, 그리고 이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이외에도 다른 條件이 充足되어 있었기에 스윙計定이 가능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되겠다. 먼저 中期國債펀드라는 高金利商品이 있어야 하는 바,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國債의 強制配定에 금융기관이 반발하여 國債買入價格의 自由化라는 形式을 통해 日本經濟內에서 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었다.⁽⁹⁾ 다시 말하면, 金利規制가 완화되어 있어 中期國債펀드라는 高金利商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상 中期國債펀드 또는 그것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의 MMF란, 高金利 時代에 들어와 종래의 金利上限을 가지는 상품만을 가지고는 效果的인 金融仲介를 할 수 없다는 데서 발생하게 된 金融革新의 產物이며, 1973年 이진처럼 利子率이 낮아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商品은 出現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銀行의 預金, 貸出, 換과 證券會社의 引受, 仲介, 딜링, 賣買 및 保險會社의 보험판매 등을 기왕의 金融商品이라고 부른다면, CD(讓渡性 定期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나 MMF(日本에서는 市場金利連動型 預金を MMC라고 부른다. MMF나 MMC는 自由金利商品인 점에서 CD와 같으나 預入 最少限의 규모가 작기때문에 去來費用이 CD보다 많이 所要되어 收益率이 CD보다 낮다.), RP(還買債, repurchase agreement; 日本式 商品은 現先), CP(新種企業어음, commercial paper; 企業이 貨幣市場에서 金融仲介機關의 仲介단을 통하

(9) 日本의 金利自由化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1975년에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여 자기신용으로 短期資金을 동원하는 手段) 등을 新商品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또 利率과 換率이 크게 변동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利率危險 내지 換危險을 전가 내지 配分하는 手段인 스왑, 옵션, 先物 등도 新商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新商品은 여기에서 나아가 이러한 新商品을 이용하여서, 종래의 금융상품과 신상품, 또는 신상품끼리를 結合하거나 加工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전통적 금융상품인 은행의 보통예금과 신상품인 RP가 結合되어 만들어진 위의 中期國債펀드가 좋은 예가 된다 하겠다.

新種金融商品은 모두 規制緩和, 특히 金利自由化와 가장 큰 관련을 가지는듯 보인다. 위의 신상품은 모두 自由金利商品으로서의 性格이 가장 현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情報通信技術의 發達は 이러한 新商品의 活潑한 去來를 가능하게 하는 要素로서 重要性을 가진다. 市場에서의 경쟁적인 금리에 바탕을 두면서 가능한 최고의 收益率을 보장해 주려고 할 때 시시각각 변동하는 市場情報를 모두 추적하고 그것에 따르는 신속한 판단과 投資決定 (portfolio 再構成의 決定)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情報通信技術이 必須의이기 때문이다.

결국 情報通信技術의 發達は 金利自由化 등 다른 요인에 의해 出現한 新商品이 存續하고 널리 去來되도록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金融商品이 定着하게 하는 데 核心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보면 情報通信技術의 核心 役割은 金融市場의 情報를 손쉽게 접근·획득하여 必要한 方式으로 處理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내린 投資決定을 具體化하는 데 不可缺의 장치를 제공한 데 있었다 하겠다. 각종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는(역시 정보통신기술의 產物인) Reuter, Telerate, Quotron 등 情報供給會社(information vendor)에 의해 주로 제공되고 왔고, 그러한 情報를 이용하여 投資決定을 내리기까지는 자신의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이 前提되어 있거나 投資諮問會社 또는 기타 情報處理用 VAN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다음, 일단 내린 投資決定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관련자와 자신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어서는 안되었다.

이에 따라 신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등 장치와 그것을 외부와 연결시킨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카드業務이기에 많은 금융기관이 카드業務에 진출하고 있다.

(10) 中期國債펀드는 RP(정확히는 現先)의 賣買가 가능하게 된 것에서 派生되어 나온 新商品으로서, RP의 追加 加工商品이라 할 수 있다.

카드業務의 내용은 카드利用者の 信用을 調査하고 신용카드에 의거해 物品을 구매했을 경우 販賣者로부터의 代金請求에 대해 支給하며, 카드이용자로부터 代金を 回收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 이 과정에서 카드를 不正하게 使用하는 것에 대한 견제 및 점검이 必要하다. 또 카드에 근거하여 貸出을 하기도 하는데, 카드買入이나 카드貸出은 割賦償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가진 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카드를 가지고 外上買入을 하고 借用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CD機 등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카드業務를 수행하는 것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情報通信技術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投資를 이미 完了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活用하기만 하면 되는 側의 입장에서 이러한 事情을 보면, 카드業務란 이러한 통신기관 관련 투자를 이룬 다음에는 누구나 진출해도 좋은 業務가 된다. 이에 따라, 이미 그러한 投資를 한 銀行들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카드業務에 進入하고 있을 뿐 아니라 製造業界, 流通業界에서도 나름대로의 카드業務를 전개하고 있고, 카드業務 專門機關도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全國적으로 수 많은 우체국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놓은 우체국組織도 카드業務를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스왑, 옵션, 先物 등 新商品을 效果的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Reuter 등 情報提供會社로부터 즉시적으로 情報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거하여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判斷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한즉 情報를 받기 위해서도 限定的이나마 관련 네트워크에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投資判斷을 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당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投資諮問會社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실제의 投資를 하거나 스왑, 옵션 등을 去來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去來할 수 있어야 하거나 銀行 등에 의뢰해서 去來해야 한다. 이때 자체적으로 投資決定能力을 쌓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投資를 하려함에도 컴퓨터 및 관련 네트워크와의 接續이 先決되어야 한다. 英國의 런던에서는 이러한 新商品은 물론 종래의 株式을 去來함에 있어서도 去來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딜을 하고 있는 바, 이 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新商品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이 절대적으로 介入되어 있음을 적시하는 바라 하겠다.

2) 業務領域의 調整

(11) 이러한 것은 신용카드에 관련된 것이고, 자신의 豫金을 前提로 하여 現金을 引出하는 現金카드에 있어서는 신용조사나 대금회수절차가 必要없다.

보통 銀行이 預金을 받고 貸出을 하며, 證券會社가 引受, 딜링, 仲介, 賣買를 한다면 保險會社는 보험상품을 취급한다고 말한다. 이때에는 預金, 貸出, 引受, 딜링, 保險 등 기존 금융상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相異한 金融機關 사이에서 業務領域이 확연히 區劃지워져 있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보험회사만이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美國이나 日本 등에서는 銀行과 證券會社 사이에서 業務領域이 확연히 區別되어 있다. 銀行과 證券業務의 區別에 대해 美國에서는 「Glass-Steagall法」이 根據가 되고 있고, 日本에서는 「證券去來法」 65條가 근거가 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1930年 大恐慌을 배경으로 하여 은행이 證券과 관련하여 한번 잘못된 投資를 회복하기 위하여 은행자산을 그 이상 證券에 투자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防止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것이 장치되었다. 日本에서는 二次大戰後 證券會社를 育成하기 위하여 銀行의 參與를 배제한 채 證券會社에게 獨占의인 일거리를 주려고 한 것에 그 原因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아울러 어느 경우이든 歐州의 傳統인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principle)와 다르고, 은행과 증권회사는 業務領域을 가지고 서로 對立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래의 慣行으로 보아서는 어느 누구의 專用商品이라고도 할 수 없는 新商品이 나타나자 은행과 증권회사 사이의 對立關係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CD나 MMF는 銀行預金의 利子上限制를 사실상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에 銀行의 商品인 것이 分明하나, CD가 二次市場에서 去來되게 되는 데도 證券會社의 仲介가 排除되어야 하는지는 分明하지 않다. 또 RP에 근거한 中期國債펀드는 證券會社가 開發한 商品이나 RP의 기간이 一年 미만인 되게 되면 그것은 貨幣市場의 商品이 되어 短期金融專擔인 銀行의 商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스윙計定에 있어서는, 그것이 證券會社의 主導權 아래서 개발되었다는 점, 그것이 보통예금을 그것의 주요 구성인자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나 實質的으로는 證券會社의 商品인 中期國債펀드의 去來를 主眼點으로 한다는 점 등이 이 상품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옵션, 스왑, 先物 등 危險再分配用 新商品이 外換과 연결됨으로써 通貨옵션(currency option), 通貨스왑(currency swap), 通貨先物(currency future)로 되있는 바, 전통적으로 外換業務는 銀行의 業務라는 점을 보면 이것들이 銀行의 商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이것들이 證券去來所 또는 그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實物去來所 등에서 去來되는 면을 보면 證券會社가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대로 新商品이란 새로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이나 去來慣習

에 비추어 어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金融의 證券化라는 根本狀況 안에서 이러한 新商品은 많은 경우 證券의 形態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 (12) 여기에서 모든 금융기관은 아무런 制約을 받지 않고, 證券形態를 가지는 금융신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를 원하게 된다.

證券의 去來를 仲介하는 것은 本來的으로 證券會社의 일이기에 金融의 證券化라는 현상은 本質的으로는 銀行보다 증권회사에게 有利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증권회사로서는 증권형태를 띠는 신상품의 취급에 있어서 銀行을 排除한 채 獨占의인 권리주장을 하고 싶은 유혹이 없지 않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銀行이란 證券會社보다 크고 힘이 있는 組織이다. 더구나 은행의 전통적 업무인 預金과 貸出의 금융상품으로서의 重要性이 점점 작아져가는 狀況에서 상대적으로 弱體인 證券會社에게 신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양보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證券의 形態를 띠고 있으면서 短期物인 대개의 금융상품에 대해 증권회사는 그것이 證券이라는 것을 빌미로 하고, 銀行은 그것이 短期金融의 方途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서로 자기의 業務領域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사실상 귀결되는 결과란 은행과 증권회사가 모두 新商品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法制的으로는 新商品에 대해 어느 쪽의 獨占의 供給權을 인정하지 않으며, 兩者의 경쟁력에 의해 실제의 신상품의 공급자가 決定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金融商品의 消費者에게는 가장 값싼 서비스를 의미하게 되기에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그것은 歐州에서의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principle) 傳統에 근접해가서, 美·日과 歐州 사이의 相異한 制度에 기인하는 金融摩擦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13)

종래의 商品에 대해서는 獨占의인 취급기관이 있으나, 新商品에 대해서는 競争力있는 기관이면 누구든 취급할 수 있다는, 이러한 方向으로의 사정변화는 은행이나 證券會社가 아닌 다른 金融機關에게도 新商品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물론 新商品의 效率的인 去來를 위해서는 效果的인 情報通信技術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새로이 참여하려는 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카드業務와 관련하여 銀行이외에 제조業生産者, 流通業者, 獨立된 카드業者 및 우체국이 進入하고 있다고 한 것이 이점과 관련된 좋은 例가 되었고, 또 生命保險會社나 年金基金이 자신들의 證券投資를 수행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投資諮問會社 또는 情報處

(12) FRN, RUF, NIF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金額의 證券化 狀況에서는 종래의 銀行貸出도 證券買入의 形態를 취한다.

(13) 同時に 美國과 日本에서 각각 分業主義(sound banking principle)를 是正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理會社를 차리게 되는 것이 다른 例가 되겠다. 또 우체국이 우편예금을 받고 있던 정도에서 벗어나 카드貸出을 포함하는 積極的 카드業務를 수행하게 되고, RP 등 新商品을 취급하면서,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支店網이 넓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證券業務와 保險業務까지 취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4. 金融政策 遂行에 대한 影響

보다 높은 利子를 주는 高收益商品이 널리 존재하고 별 어려움 없이 보통예금으로부터 高收益商品에의 投資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銀行에 대한 보통예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낮은 利子를 주고도 받을 수 있었던 보통예금이 있었다는 것이 銀行의 주요 收益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예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銀行의 存立基盤을 위태롭게 한다.

보통예금을 받아 단기대출을 하는 小賣金融을 主業務로 하는 商業銀行業務(commercial banking)는 이에 따라 쇠퇴하게 되고, 株式이나 社債의 引受業務 및 金融新商品을 취급하는 業務를 주로 하는 美國式의 投資銀行業務(investment banking)가 주요하게 된다. 그리고 擴張하는 業務量을 좇아 銀行業務를 조정하다 보니 商業銀行業務를 하던 大銀行들은 子會社 기타의 形式을 통해 投資銀行 또는 證券會社를 設立하려고 하게 된다.

한편 CD 내지 ATM이 있어 現金을 손쉽게 引出할 수 있고, 각종 情報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해진 資金計劃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家計에 대해서는 信用卡 등에 의해 消費者金融이 擴大되고 있다. 또 銀行들은 CD 등 新商品으로 動員한 資金을 積極的으로 企業 등에서 活用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家計나 企業 모두에 대해 資금을 借用할 수 있는 機會가 넓어지자, 貨幣需要 특히 現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銀行預金(특히 은행예금의 근간이 되는 보통예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다른 편으로는 現金에 대한 日常的 需要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現金通貨와 預金通貨의 합으로서 規定되는 通貨集計值(monetary aggregate)로서 M_1 또는 M_2 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同一한 國民所得 또는 國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M_1 또는 M_2 가 相對的으로 작아졌기에 이들 간의 比率로서 規定되는 流通速度(velocity of circulation)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좀 더 根本的인 視角을 가지고 보면 銀行과 비슷하게 각종 新種금융상품을 공급하는 金融機關이 많아지고 그것들의 相對的인 重要性이 커졌으며, 특히 이들 중에는 사실상의 支給濟機能을 보장하는 新商品을 공급하는 種類도 있는 狀況으로 되었기에, 商業銀

行業務를 하는 은행의 預金形態를 가진 債務만을 가지고 通貨量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M_1 또는 M_2 를 規定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M_1 또는 M_2 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銀行만이 支給決濟手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었고 그것과 類似한 代替物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으며, 은행의 預金이 民間의 購買力을 훌륭히 代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은행과 근사하게 事實상의 支給決濟手段을 제공하는 각종 기관들이 예금類似商品을 공급하고 있으며, 카드에 의한 貸出可能性은 물론 NIF 또는 RUF에 의해 預金の 發生을 동반하지 않는 事實상의 貸出도 존재하는 때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M_1 또는 M_2 의 統計値에 집착할 理由가 없어졌다.

理論史的으로 보면 通貨的 集計値로서 M_1 또는 M_2 가 실제적 중요성을 갖게 된 계기는 1970年代의 汎世界的 인플레이션을 背景으로 通貨主義가 風靡한 때서 찾을 수 있다. 이때로부터 여러 나라의 通貨當局은 通貨的 集計値를 推計하여 發表하였기 때문이다. 또 通貨主義가 이때 풍미할 수 있었던 것은 通貨的 集計値로서의 M_2 등과 名目國民所得 사이에 一定한 關係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금융부문에 영향을 주어 M_1 또는 M_2 의 意味가 전과 같지 않아진 때에 이르러서도 과거의 타성을 따라 M_2 등과 名目國民所得이 一定한 關係를 가지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아마도 어떤 通貨的 集計値와 名目國民所得 등이 어떤 간단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계속 믿는다면, 變化된 狀況에서도 그러한 關係를 지녀 有用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通貨的 集計値 M_1 를 새로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종래에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처럼 어떤 通貨的 集計値와 國民所得 사이에 安定的인 關係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單調하게 通貨的 集計値를 조절하는 것 만으로는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결코 充分할 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示唆한다.

하나의 정책수단의 運營으로 充分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補完할 수 있는 다른 手段도 동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通貨量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利率이기 때문에 不完全한 通貨的 集計値의 조절과 더불어 각종 利率의 움직임을 注視하고 필요시에는 操作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利率을 관찰할 수 있는 場所가 國債市場, CD市場, CP市場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市場임을 想起해야 하고, 通貨的 集計値를 보완하는 利率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이들 市場에서의 利率의 平均的 推移를 注目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金融市場의 開放程度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國內의 利率과 국제금융시장의 利率이 換率의 豫想値를 差異로서 가지면서 關聯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여⁽¹⁴⁾, 外換市場에서

(14) 이 關係를 利率平衡의 定理(interest parity theorem)라고 한다.

의 換率의 움직임도 注視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利率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규정되는 각종 금융상품시장에 介入해야 할 것이다. 中央銀行은 國債市場에서 公開市場操作을 하고 外換市場에서 外換市場操作을 하듯이, CD市場, CP市場 등에서도 介入操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情報通信技術發達の 實物部門에의 影響

앞에서 보았듯이 정보통신기술은 實物部門의 自動化, 經營情報體系를 이용하는 合理化, VAN 등을 통한 生産・流通過程의 네트워크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발달이 실물부문에 끼친 이러한 直接的 影響을 考慮外로 한채, 지금까지 살펴 본 금융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파급되어 오는 間接的 影響을 간단히 살펴 본다.

정보통신기술발달에 의해 금융부문이 효율화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금융부문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입하는 실물부문의 입장에서 보면, 良質의 多樣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된다. 이에 따라 실물부문에 生産原價가 낮아지고 競爭力이 提高되게 된다. 더불어 金融서비스의 供給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實物部門의 企業이 자체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조달할 必要가 없어진다. 예전대 金融機關으로부터 CMS를 받고 效果的인 投資諮問을 받게 됨에 따라 企業 내부에 가지고 있던 會計 또는 經理機能이 크게 간략화된다.

이에 따라 實物部門은 實物部門의 일인 財貨의 效率的 生産에 全力하게 된다. 努力의 集中에 의해 實物生産에 있어 生産性이 높아지는 한편, 經濟全體의으로도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이 모두 각자의 比較優位에 상응하는 業務를 수행하게 되어 最高의 效率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근년에 財테크라는 말이 논의되고 생산기업이 財테크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고 있다. 利率과 換率이 可變的인 상황에서 소극적으로는 이들과 결부되어 있는 價格危險을 克服할 수 있고, 積極的으로는 利益을 내는 投機를 할 수 있기 때문에, 生産企業이 生産活動이 아닌 方途를 통해서도 이익을 올리려고 하고 또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상황에서 生産活動을 통한 이익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때 不動產投資, 外換投資, 證券投資 등의 기회가 있고 그것을 善用할 수 있다면 財테크로써 生産活動으로부터의 이익을 증가하는 이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産企業의 비교우위는 生産活動에 있는 것이며 금융투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財테크에 의한 成功은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하지 않으려면 生産企業이 金融企業으로 變身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자의 財테크에 대한 熱氣는 非正常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금융시장정보를 生産企業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投資諮問會社도 많아 값싸게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이 금융부문의 경쟁을 갑자기 격화시킨 短期에서는 生産企業도 財테크에서 成功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金融部門의 경쟁상태가 正常으로 회복될 것이기에 非金融企業의 財테크는 금융기업에 의한 투자보다 뒤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生産企業에 의한 財테크라는 非正常的 活動은 결국에는 소멸되게 될 것이다.

IV. 우리나라 金融電算化의 現況과 課題

우리나라에서도, 汎世界的인 規制緩和의 움직임, 可變的인 利子率과 換率에의 適應, 業務의 增加 및 고객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한 業務效率化 및 電算化의 必要에 따라 1960年代 後半으로부터 컴퓨터를 導入하여 이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금융전산화를 향한 노력을 해 왔다.

1970年代에는 銀行의 營業店業務를 自動化, 電算化하였고, 1980年代에 들어서서는 영업점의 資料를 本部에서 管理情報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個別銀行別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다가 1988년에 들어와 CD共同網을 통해 銀行間 電算化의 첫발을 디디며, 1989년에 音聲情報서비스(audio response service: ARS)를 시작했고, 他行換시스템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의 영업점 전산화의 현황이 <表 1>에서 보여지고 있다. 1988年末 現在 3,088개 영업점중 99.4%에 해당하는 3,070개의 영업점이 창구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창구업무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수신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나 여신업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은 대형CPU를 가진 單一센터에 의한 中央集中式 정보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영업점 창구업무와 관련된 계정시스템과 본부와 영업점의 관리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계시스템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금융전산화의 기본방향으로서

- i) 전산화대상범위를 擴大하고,
- ii) 安全對策을 마련하며,

〈表 1〉 營業店 電算化 現況

구 분	1987년말			1988년말		
	총영업점	전산화영업점	전산화율(%)	총영업점	전산화영업점	전산화율(%)
특수은행	1,419	1,372	96.7	1,516	1,505	99.3
시중은행	976	976	100.0	1,064	1,064	100.0
지방은행	463	463	100.0	508	501	98.6
계	2,858	2,811	98.4	3,088	3,070	99.4
본점 영업부서	72	70	97.2	96	83	86.5
지점 ¹⁾	2,589	2,547	98.4	2,758	2,754	99.9
간이예금취급소	89	86	96.6	80	79	98.8
소형기계화점포	108	108	100.0	154	154	100.0

資料：金融電算網推進委員會(1989)

註：1) 출장소, 농·수·축협의 군지부 및 지소 포함

iii) 연동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게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iv) 대고객서비스를 개선한다

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나, 豫算과 人力의 限界 및 전산화된 서비스에 대한 需要의 불투명에 따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전산화의 대상으로서 選定된 業務로서는

- i) 고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ii) 영업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iii) 경영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iv) 自動化, 無人化 시스템에도 대비하는 것
- v) 機能分化 및 體系化를 가일층 추진하는 것

을 적시하고 있으며, 완비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여 선진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홈뱅킹이나 뽐뱅킹은 관심외로 하되,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有用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投資費用이 드는 증권회사의 출납업무, 외국환업무, 당좌계정관리업무 등에 당면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점 업무 중에는 계산업무 및 외국환업무를 우선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경영정보시스템으로서는 우선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것과 기타 영업점의 情報를 가지고 본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體系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대고객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CD共同網을 擴充하여 CD/ATM 공동이용시스템을 마련하고, ARS시스템, 他行換시스템, 은행간 資金決濟시스템 및 信用情報共同이용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간 전산시스템,

가계·은행간 전산시스템, 販賣代金自動決済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고객의 수요가 현재 화할 것을 기다려 차후 개발하기로 하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金融電算化 정도는 先進國에서 小賣銀行業務를 始發點으로 해서 1970年代에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投資費用과 電算人力의 限界를 의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우리經濟의 發展을 展望하고 그것에 필요한 電算化를 이룩하겠다는 式的 積極性을 지니고 있지는 못한 듯 보인다. 우리 나라의 金融電算化推進에 있어서는 日本이 1970年代初부터 第1次 온라인시스템, 第2次 온라인시스템, 第3次 온라인시스템의 段階를 거쳐 발전해 온 것이 깊이 意識되고 있으며, 現在의 段階를 CD共同網, ARS 및 他行換시스템 등을 準據로 하여 日本의 第1次 온라인시스템 기간인 1970年代初의 그것과 상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先進國에서 小賣金融業務를 中心으로 電算化를 시작한지 30年 가까이 지난 시기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先進國에서 이러한 電算化를 추진해 본 結果에 대해 反省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전산화를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先進國에서의 反省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할수록 小賣金融 中心의 전산화노력이 가지는 限界 또는 오늘날의 時點에서 보아 우리에게 중요한 教訓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루틴한 作業過程이 쉽게 전산화되기 때문에 소매금융의 여러 업무가 우선 전산화의 대상이 되나 일선 영업점의 창구업무라고 하여 100% 自動化·無人化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自動化 내지 電算化가 組織內 사람들의 行態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그 業務가 明白히 規定된 後에야 자동화나 전산화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그러할수록 歐美社會보다 우리 社會에서는 직장에서의 業務區分 내지 業務明細化(job specification)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一線業務라 하더라도 電算化할 수 없는 部分이 歐美社會에서보다는 더 크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래의 小賣金融中心의 전산화의 先例를 따라야 하리라는 것이다.

둘째, 金融業務의 重點이 小賣金融에서 都賣金融으로 바뀌고 있고, 또 도매금융을 하는 은행들에서는 세일즈파트에서 新商品의 販賣를 이루었는데도 後線(back office)에서 그런 販賣行爲를 文書化하고 資金을 移替하는 등 後線業務로써 그것을 밀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問題點으로 적시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都賣金融을 염두에 두고 전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가 추가로 언급될 수 있다. 먼저, 金融의 汎世界化와 더불어 각국의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이 더 심해지는데, 이러한 국제적 경쟁은 小賣金融에

서라기 보다는 都賣金融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小賣金融에서는 아무리 自動化・電算화로 支店網을 代置해 보려고 하더라도 限界가 있어 外國의 銀行이 다른 나라에 가서 充分히 경쟁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고 있다.⁽¹⁵⁾ 따라서 국제적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都賣金融分野에서의 경쟁성이 焦點이 된다고 하겠다.

다음, 우리는 요즈음 通信市場開放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 外國의 金融VAN이 進出하거나 이미 진출한 外國의 金融기관이 더 이상의 情報通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經濟內的 都賣金融分野에서 경쟁하려 한다면, 우리의 金融기관은 外의의 어려움을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우리社會에서의 小賣金融分野에서 우리나라 金融기관이 市場을 잃을 것을 심각히 걱정할 必要는 없고, 때문에 金融電算網은 都賣金融을 강화하게 하는데 焦點을 두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社會에서 現金을 많이 이용해 온 慣習을 상기하고 나면 소매금융 次元에서의 現金화는 CD機 등을 더 늘리고 信用卡의 이용을 더 擴大하면서, 보다 效率的인 支給決濟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만 마련하면 充分할 것이다.⁽¹⁶⁾

反面에 都賣金融 次元에서 新商品, 그것도 앞에서 설명된 基本商品으로서의 新商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結合物로서의 新商品의 供給을 늘릴 수 있도록 能力을 쌓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業務를 차질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下部構造를 마련하는 것이 金融電算化의 核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經常收支黑字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資本輸出國이 되어야 한다. 資本의 輸出은 상당히 많은 資本의 流出과 상당히 많은 資本의 流入이 있는 가운데 流出이 流入보다 많아, 純計로서 輸出이 된다는 式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資本을 輸出하면서 포트폴리오多邊化를 피해 利率리스크 및 換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方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資本의 流出과 流入은 企業들에 의한 資本流出入 및 그것과 어떤 關係를 가지는 金融機關들의 資本流出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企業의 資本流出入은 金融機關의 仲介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 대해서 都賣金融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外國銀行들이 第一次의 仲介서비스 供給者가 될 것이다.

도매금융에 있어 一般的 경쟁력에서 上位에 있는 外國은행들과 우리나라 金融기관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 企業의 金融서비스에 대한 需要를 더 확실하게 식별하고, 外國의 金融기관보다 우리企業의 需要에 더 合致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길 밖에 없다. 여

(15) 이러한 一般的 判斷에도 불구하고 外國에서 小賣金融으로 경쟁하려는 銀行은 現在 Citi銀行 하나 뿐이라 보여진다.

(16) 기존의 利率 및 自動移替制度가 이것을 補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에서 도매금융분야의 금융전산화라는 企業의 需要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그러한 수요에 따르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能力을 갖추어 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推論된다.

자본流出入과 관련된 금융서비스의 需要는 신속한 국제자본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必須要件으로 한다. 여기에서 금융전산화는 국제자본이동을 지탱할 수 있게끔 海外的 네트워크와 接續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國內에서는 홈뱅킹이나 뿔뱅킹을 할 수 있게끔 장황스럽게 펼쳐진 네트워크일 필요는 없겠으나, 國內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네트워크가 해외의 네트워크와 긴밀히 접촉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國內의 간단한 네트워크는 금융신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後線業務를 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는 下部構造가 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融研究會, 『金融産業의 業務領域 調整』, 1989.
- 金融電算網推進委員會, 『금융전산화 기본계획』, 1988.
- , 『銀行의 電算化 方向에 관한 研究』, 1989. 4.
- 趙東成, 『최신경영정보시스템』, 石井, 1988.
- 金融情報システムセンター 編, 『金融情報システム白書』, 財經詳報社, 1988.
- 三井情報開發 編, 『情報技術と日本産業』, 日本經濟新聞社, 1986.
- 生方幸夫, 『VAN가動くビジネス가變わる』, 朝日新聞社, 1987.
- 石崎純夫 編著, 『コンピュータバンキング』,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7.
- 松尾良彦・江頭考久, 『決濟革命』, 日本經濟新聞社, 1986.
- 式場 英, 『情報ネットワーク가會社を變える』, 有斐閣, 1988.
- 總合研究開發機構 編, 『金融自由化をいかに進めるべきか』, 1985.
- MCK 編, 『All About 業際』, 近代セールス社, 1988.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A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Financial Netting Arrangements by Banks," *The World of Banking*, March-April 1989.
- Chorafas, D., *Money: The Banks of the '80s*, Petrocelli Books Inc., 1982.
- Goodhart, C., "Structural Changes in the Banking System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Stock of Money," R. Masera and R. Triffin (eds.), *Europe's Money*, Clarendon Press,

1984.

- Harris, L., et al. (eds.), *New Perspectives on the Financial System*, Croom Helm, 1988.
- Kim, Cae On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Issues in Telecommunications—The Case of Korea," a paper in Korean-European Seminar on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and Cooperation, March 14-17, 1989.
- Lipis, A., Marshall, T., and Linker, J., *Electronic Banking*, John Wiley and Sons, 1985.
- Members of Bankers Clearing House (U.K.), *Payment Clearing System*, 1984.
- Snow, M.S., "Telecommunications Literature," *Telecommunication Policy*, June 1988.
- Solomon E.M., (ed.), *Electronic Funds Transfer and Payments: The Public Policy Issues*, Nighoff Publishing Co., 1987.
- Trampush, D., "Current Developments in the U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통신개발연구원 국제 학술대회 자료, 1989. 6. 13.